

# 모자이크, 단청문양과 만나 새 문화가 되다



### 프리울리 출신 작가·광주 작가 11명 공동작업 빛고을시민문화센터 주변 가로등에 작품 부착

한국의 전통 단청 문양과 이탈리아 모자이크 기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4일 오전 빛고을시민문화센터에서 열린 '제2회 광주 모자이크 워크숍' 이틀간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를 졸업한 뒤 현장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화선(30)씨와 이 학교 졸업생 라우라 카라로(27)씨가 광주지역 작가 11명과 함께 작은 유리 조각을 이어붙이고 있었다.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는 지난 1922년 설립됐으며, 전통적인 방식과 소재의 작품부터 현대적인 작품까지 아우르는 전 세계 유일의 모자이크 전문 교육·연구기관이다.

지난해 이 학교와 지역작가들의 첫 워크숍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 '일월오봉도'를 이탈리아 전통 모자이크 기법으로 만들었고,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한국의 전통 단청 문양'으로 정했다.

이들은 이탈리아에서만 나는 반투명 유리 '스말티'를 작은 쇠망치로 일일이 깎아 크기를 맞춰 관에 붙여 나갔다. '스말티'를 사용하는 이유는 빛을 잘 투사하고, 비와 햇빛에 강해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작가들의 지도를 받으며 한국 작가들은 30cm 크기의 모자이크 단청 21개를 만들어 빛고을시민문화센터 주변 가로등 7곳에 부착하게 된다.

관에 그려진 밑그림은 정음에서 나온 자란 뒤 대학에서 불교조각을 전공한 차화선씨가 맡았다. 밑그림 색에 맞춰 모자이크 조각을 붙여 작업을 완성하는데 모는 것을 수작업



4일 빛고을시민문화센터에서 모자이크 작가 차화선·라우라 카라로씨가 지역작가들과 함께 한국의 단청 문양을 모자이크로 제작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으로 하다보니, 한 사람이 하루에 가로 세로 각각 10cm 크기를 만들기도 비슷한 고된 작업이다.

"같은 크기로 유리를 깨서 붙이면 작품이 평이해집니다. 유리의 크기를 다르게 해야만 입체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차씨와 라우라 카라로씨의 조인에 황인옥(공예)·박설(회화)·신성주(도예)·이기원(조각)·김원(관화)·조사라(회화)·안경미(도예)·최선의(공예)·박환성(조각)·박은

선(회화)·박아름솔(디자인) 한국 작가들은 손을 바쁘게 움직였다. 이들 작가 대부분은 지난해 1차 워크숍에 참여했기 때문에 손놀림에 사뭇 익숙함이 묻어났다.

라우라 카라로씨는 "예술 전공자들이라서 기법 습득이 빠르고, 표현력도 좋다"면서 "한국의 전통 문양을 배울 수 있어 감사로서도 행복한 경험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자이크 워크숍이 단기 행사로 끝나는 아쉬움도 컸다.

이기원씨는 "지난해 1차 워크숍 이후, 더욱 높은 단계의 모자이크에 도전해보고 싶어도 재료를 구하기 힘들고, 아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다"며 "지속적인 교육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9일까지 모자이크 역사, 재료, 기법, 제작과정, 작품관리와 설치 등 전반적인 교육을 받고 작품 제작도 함께 하게 된다. 완성된 작품은 오는 10일 설치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신예작가들 톡톡 튀네

무등현대미술관, 8일~8월 10일 '아트프로세스 2011'전

무등현대미술관은 8일~8월 10일 신예작가들의 톡톡 튀는 작품을 선보이는 '아트프로세스 2011'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사라·김선명·김영일·김윤정·김혁·나인승·박성배·박성환·설 박·성혜림·심로사·안희주·윤준영·인춘교·조성훈씨가 참여한다. 광주지역 5개 대학교에서 추천한 이들 작가는 20대 중·후반 세대 내기로 실험정신 가득한 작품을 선사한다.

한국화가 설박씨는 한지에 먹을 먹이고 찢어 붙여 구성한 독특한 방식의 '어떤 풍경'을 보여주고, 김혁씨는 배트맨과 조커, 스파이더맨 등 대중문화 아이콘을 통해 세상의 양면성에 대해 뒤집는 '시작은 같은 지구인'을 전시한다. 또 오는 8일 오후 4시 이 미술관에



성혜림 작 '생각하는 아이'

서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 창작 경험과 모색방향'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열린다. 문의 062-223-667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엄마가 쓴 글에 아들이 그림 선물

민금순씨 동시화집 '낙엽이 아플까봐' 출간

전남문인협회 회장 '전남문학' 편집장을 맡고 있는 아동문학가 민금순(43)씨가 첫 동시화집 '낙엽이 아플까봐'(한림출판사 펴냄)를 출간했다.

특히 이번 동시화집은 그림에 소질이 있는 작가의 아들 김한걸(12·광주화계초교 6)군과 함께 만든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아들과 함께 2년여의 작업 끝에 완성한 책은 가족사랑의 마음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맑고 밝은 시어와 예쁜 그림으로 담은 70점의 작품을 '엄마의 사랑' 등 5부로 나눠 엮었다.

작가는 "마음을 담아내는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다"면서 "천사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자연의 고마움과 생명의 환희를 받아들이는 그런 소망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최순 출생인 민씨는 '문학춘추' 시



작가 민금순씨와 아들 김한걸군.

로 등단했으며 전남여류문학회 사무국장, 문학춘추작가회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월야지역아동센터 아동지도교사로 일하고 있다. 문의 010-7654-1439. /김대성기자 bigkim@

## 첼리스트 박승유, 지휘자를 꿈꾼다

오스트리아 유학 중 빈 국립음대 지휘과 합격... 9월 광주서 독주회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중인 첼리스트 박승유(25)씨는 팔방미인이다. 광주 문산중을 졸업하고 곧바로 유학길에 오른 박씨는 현재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에서 첼로를 전공중이다. 그녀가 최근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지역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빈 국립음대 지휘과에 합격, 지휘자로의 공부를 병행하며 또 하나의 꿈을 꾸고 있다.

박승표(한국방송기자연합회 국장), 김유정(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 단장)씨 부부의 딸인 박씨는 5살 때 김씨로부터 첼로를 배우며 음악과 인연을 맺었다.

살레시오초등학교와 문산중을 거치며 호남예술제,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한 박씨는 15세 때 오스트리아 국제음악코스에서 세계적인 첼리스트들을 양성한 하이다 리차우어 교수를 만났고, 잘

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박씨는 유니세프가 후원하는 '월드 유스 오케스트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바이올리니스트 예후디 메뉴인이 설립한 '메뉴인 장학재단' 오디션에 합격, 메뉴인 재단 영구 솔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박씨는 꾸준히 작곡과 편곡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자신이 직접 대본을 쓰고 작사 작곡한 뮤지컬 두편을

직접 기획, 연출, 지휘해 빈에서 초연했다. 2007년과 2009년 각각 '더 스타'와 '더 문 시티'를 무대에 올렸으며 12월에도 창작 뮤지컬 '파라다이스'를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또 오는 9월에는 서울 모차르트홀에서 열리는 말러 서거 50주년 기념 음악회에도 참여한다. 박씨는 말러 교향곡 '대지의 노래'를 두 대의 피아노와 바리톤을 위한 곡으로 편곡했고 바리톤 박흥우 교수가 이 곡을 연주하게 된다. 그밖에 오는 9월 8일 유·웨이 금호아트홀에서는 자신의 첼로독주회도 열 계획이다.

한편 박씨의 동생인 승민(22)씨도 중학교 때 유학길에 올라 현재 빈 국립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등 '음악가족'을 이루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장성 필암서원 산양회

#### 내일 하계학술발표회

장성 필암서원 산양회(회장 오인균)는 6일 오전 10시30분 서원 집성관에서 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김기현 전남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한국유학의

현대화를 위한 논점 3가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예정이다.

필암서원측은 이날 학술발표회 참석자들을 위해 광주~장성 필암서원 간(광주공원 출발 오전 9시, 광주문예회관 후문 출발 오전 9시20분)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문의 010-6712-888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SINCE 1982

#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종로5가역 4번출입구 1층(지하철 1호선) 문의전화 : 02)765-9940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앞))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 Cool Wedding Event

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  
온돌 페백식 / 페백용품제공  
아이스카빙 제공

웨딩 축하 케이크 제공  
꽃길 서비스  
특수 연출 서비스  
신양 허니문 카드 증정

## Special Rate

뷔페 ₩29,000 / ₩33,000  
양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